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소) 합창곡(3권) | 찬불기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16일(음력 12월 9일) 수요일 (주간) 제662 호

"대운하 건설 문화유산 파괴"

사찰·유적지 등 피해 우려 반대 여론 고조

불교계단체 국민검증기구 구성 촉구 시위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불교문화와 생태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불교환경연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등 불교 단체를 비롯한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월 1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사무실 앞에서 'TF 해체 및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지난해부터 경부운하 '조령대수로터널'의 생태·불교문화 파괴 문제점을 제기해 온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준)와 금강회(회장 보선)도 10일 간담회를 열고 경부운하 저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보림·금강회 소속 스님들은 "조령대수로터널은 생태환경 및 역사유적지를 파괴하는 대재앙"이라고 경고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7일에는 화계사 주지 수경스님이 조선일보에 '대운하는 청계천과 다르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토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며, 역천(逆天)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운하 지역 생태 및 불교문화재 파괴=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운하 건설 지역의 생태 및 문화재가 파괴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재청이 1월 3일 한반도대운하 TF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운하 예정지에는 국보·보물급 문화재 6점을 비롯한 72건의 지정문화재와 한강·낙동강 유역의 매장문화재 177곳 등 총 299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국민행동은 7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치는 대운하 전체 구간이 아닌 한강·낙동강·경부운하 주변의 문화재 분포만을 다룬 것이며, 전체 구간을 따져보면 수천 수만 점의 문화유적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8일 대운하 TF에 "대운하 건설 등에 따른 문화재 발굴 수요를 감당하려면 국책사업 발굴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보림·금강회가 작성한 '경부운하 조령대수로터널의 생태·역사유적지 파괴' 보고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환경·불교문화 파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조령대수로터널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월악산 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한다"며 "이 지역의 석회암 지대 역시 운하 입지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변 지하수위 하강 ▲자연생태계 변위에 따른 안개 발생 급증 ▲역사문화유적지 파괴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령대수로터널 구간과 약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문경 봉암사와 덕주사 마애불, 여주 신륵사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미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공사 전제 않는 공동조사단 구성해야=각계의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대운하 TF는 대운하 건설 강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한반도 대운하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취임 후 1년 쯤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 TF 역시 "2월 중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고 4~5월 경 영향평가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9월 중으로 사업자를 공모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하고 2012년 완공하겠다는 마스터플랜도 제시했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국민행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론 수렴과 환경단체와 공동탐사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운하 추진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한반도운하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TF를 해체하고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원로로 하여금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서 100인의 시민 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림·금강회 역시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 측 인사와 환경·시민단체·종교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제·생태환경·역사문화·인문사회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은 "대운하는 한반도의 생태와 문화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사전 진단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불교계 내의 단일한 목소리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이천 참사 희생자들 극락왕생 하소서"

1월 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마음이 모아지는 가운데, 9일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맨 왼쪽)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가운데), 이천 영월암 주지 홍법 스님이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시민회관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님들은 합동 분향 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애도문을 발표한데 이어 불교인권위원회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천/글·사진=박재완 기자

'종교간 화합' 범망경에 답 있다

<문학/사학/철학>게재 東大 박사과정 김경래씨 논문 눈길

개신교 장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이 함께 만든 대통령이지만 벌써부터 불교계 일각에선 개신교의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정서가 불교계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불교포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종교간의 공존을 위한 이론적 모색'을 꾀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계간 <문학/사학/철학> 제11호(2007년 겨울호)에 게재된 김경래씨(동국대 박사과정)의 논문은 초기 빠알리 경전 중 <범망경>을 인용·연구한 것을 정리한 것.

"다종교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만나는 상황을 평화적 공존으로 이끄는 것이 종교학의 사명"이라 전제한 김씨는 붓다가 활동하던 고대 인도사회가 전통 바라문 사상과 혁신적 자유사상이 난립하던 시기였다는데 착안해 논지를 전개했다.

김씨에 따르면 붓다는 당시 유행하던 사상을 62가지 견해로 분석하고 이들의 그릇됨을 밝혔다. 하지만 붓다는 이 견해들을 전적으로 배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마타(止, samatha)에 수용해 모두 열반에 포괄시켰다. 김씨는 이것을 '불교 포괄주의'라 표현했다.

김씨의 '불교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를 배격하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타종교 이해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김용표 교수(동국대)가 <불교와 종교철학>에서 제안했던 '연기적 다원주의'와 흡사하다. 김씨는 김용표 교수 글을 인용해 <범망경>이 명백한 전거와 철학적 논리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불교 포괄주의'를 보인다는 자신의 논지를 굳혔다.

김씨가 정리한 붓다의 관용적 외도관은 다른 종교들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화두에 답을 준다. ▲외도사상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간다 ▲외도사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명백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김씨는 이것을 <범망경>에서 붓다가 자신의 경험에 갇힌 중생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단지 느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과 연결해 "자신의 한계를 통찰해야 배타성이 극복되고 진정한 화합에 이르게 된다"고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새연재 나의 삶 나의 불교학 ▶12면
새연재 함께 가요 강의실로 ▶18면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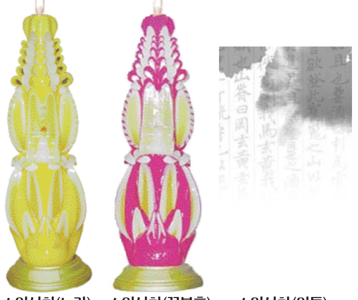
허허당의 세상 만사

■ 선유(禪游)

인생은 노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슴 뛰게 노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가 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노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열심히 놀라는 것,
다른 의미가 아니다

"부처님 등불" 수공예전기촛불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수 있으며, 30초 간격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이다. 색상도 흰색, 꽃분홍, 노랑, 청색, 옥색 외 다수가 출시 되었다. 이제품은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 제품문의 02)996-8830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꽃분홍) 소원성취(원통)

달마 선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스승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진리는 보편 타당성에 바탕하므로 간명하다
불법 역시 대신 삶을 살아 줄 수 없다는
진리에 바탕하여 주체성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이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찾아
제 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으므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일신을 위하는 유위법은 100년을 닦아도 죽으면 함께 없어지지만 마음을 구하는 무위법은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물이 되므로 마음 닦는 길을 「금강경」이라 한다. 불교의 주체는 육신이 아닌 마음이고, 마음은 생사도, 남녀도, 더럽다, 좋다도 없이 온갖 모습으로 윤회할 뿐 불생불멸이므로 영원을 살기 위해 마음을 구함에 있다.
그러나 범부는 나무의 뿌리는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뿌리인 마음은 없다 하고 보이는 일신만 유일한 자신으로 알고 부처를 구하느라 절하고 진언, 기도, 염불과 경전을 읽는다.
이 같은 다문(多聞)을 깨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개정판
달마선법으로 본
금강경

신국판 / 509페이지 / 12,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6층 주문전화 02)2004-8237